

문화

제 8회 광주일보 문학상 이현옥 인터뷰

“아름·중요까지 보듬어야 진짜 삶이죠”



제 8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인 이현옥(54) 씨는 시인으로 등단, 소설로 '전향'한 시인·소설가다. '소설'을 찾는 독자가 더 많은 시기, 시인으로 출발해 여러 권의 소설을 펴낸 작가들도 적지 않으나 딱히 특별한 것도 없다. 따져보면 제법 오래됐다. 문학계에서는 '이슈'도 아니다. 그럼에도 시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소설가로 변신한 이유가 궁금했다. 지난 1997년 광주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된 이씨의 '호통불을 켜고'라는 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시상 전제가 차별했고 이야기 작조 능력이 있다', '삶의 구체성이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씩 관찬은 평가를 받았다. '잘 걷고 있는 길' 대신, 새로운 길을 택한 건 나를 깨닫지 못했을까. "시를 쓰면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이씨는 처음엔 웃으면서 슬쩍 넘겼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요즘엔 소설이 시보다는 '돈'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찾는 독자가 많다보니 팔리는 것도 차이가 난다. 물론, 신춘문예만 하더라도 시와 소설 상금이 차이 난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기에 짧은 시어만으로도 녹여내기엔 버거웠어요. 누군가 저를 아는 분도 '네 삶 자체가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수상작 '떡볶이'는 작가의 삶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택한 듯 보이지만 간접 경험을 담고 있다. 주제도 묵직한 울림을 던진다. '뜨거운 삶의 밑바닥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서서히 걸쭉하게 깊고 진한 떡볶이를 끓여내고

자 하는 묵묵한 시선을 담아냈다'는 심사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미운 정이 더 깊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인간 관계도 삶의 아픔, 중요 등을 모두 보듬고 녹여낸 뒤에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양념을 곁들이고 오랫동안 끓일 때 맛이 나는 떡볶이처럼요." 줄거리가 탄탄하더라도 글로 내놓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광주일보 '행복한 책임기'란에 고정 글을 쓰면서 다양한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게 무엇보다 도움이 된 것 같아 고마울 따름입니다. 책 읽고 많이 써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싶더라고요." 이씨는 전화로 수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 작품 제출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했다. "솔직히 작품 제출했다는 사실조차 잊었어. 수상 소식을 들은 뒤에야 기억났거든요. 믿어지지 않아 아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씨는 다음 작품도 이미 구상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제가 젊은 세대와 쉽게 섞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젊은 사람들의 소유 개념을 다루는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딸도 소재를 주고 제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중이거든요." 다시 이씨의 '소설같은 삶' 얘기가 궁금해졌다. 이씨는 "다음 소설 나오면 그때 차분히 들려 주겠다"고 했다. 다음 작품은 언제쯤 나올까.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단단한 주제의식 순도 높은 비유 돋보인 작품”

심사평

예년에 비해 응모작이 가장 적었던 시의 경우, 수상작으로 삼을 만한 작품은 없었다. 아름다운 시는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일 것이다. 한 줄 두 줄 마음의 산책이 이어지며 정신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삶이 지닌 신화의 속성을 깨우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한 줄의 시는 팝진한 삶을 이어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응모된 시편들을 읽으며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따스함도, 정신의 깊이도, 새로움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곤궁한 시절에도 시는 그 스스로의 빛과 향기를 지닌다. 시간의 강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춤을 한 편의 시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이다.

열여섯 편이 응모했던 아동문학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역자들이 많았다. 알레고리 기법에 의한 반일 사상, 동물들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우정, 아기 탄생의 비밀, 전쟁의 상흔과 통일의 꿈을 다룬 작품 등이 흥미와 관심을 끌 만했다. 동시 쪽에서는 상당히 적조 높은 시적 품격과 향기를 확보한 작품들과 선명한 동심 이미지가 반짝이는 작품들이 있어 든든한 감을 주었고, 동화 부문에서는 중편 동화로서의 주제의식과 스토리를 갖춘 작품과 시의성 있는 주제를 깔끔한 문체로 다룬 어린 작품이 눈에 띄었지만, 수상작으로 삼을 만큼의 중량감을 가진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두 편의 중편소설을 포함해 아동 문학의 응모작이 있었던 소설 부문은 시와 아동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합할 만한 작품들이 많았던 분야였다. 그 중에서도 '떡볶이'는 단단한 주제의식, 순도 높은 비유와 공들인 문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하트만이라는 게 혈액 자체가 아니라, 혈액 대

용제였듯, 진정성 하나만을 보고 선택했던 남편이 사실은 유사 인생을 사는 자였으며, 자신의 삶은 그를 돌보는데 소진되고 말았다는 깨달음, 뜨거운 삶의 밑바닥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서서히 걸쭉하게 깊고 진한 떡볶이를 끓여내고 자 하는 묵묵한 시선을 높이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은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심사가 끝난 후, 수상 작가가 광주일보 신춘문예에서는 시 부문 당선자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다른 문학작 경로를 통해 소설 부문에서도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가기 때문에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광주일보문학상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장르를 뛰어넘는 문학작역량 발휘에도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심사위원 전원과 광주일보사의 합의가 있었다. <심사위원>곽재구·윤삼현·이미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00권 돌파

‘이상소설전집’ 출간으로... ‘호밀밭의 파수꾼’ 최다판매

민음사가 '이상소설전집'을 내놓으면서 세계문학전집 출간 14년 만에 300권을 돌파했다. 그동안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책은 제목 D. 샬린 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나타났다. 민음사는 5월 이상(1910~1937)의 단편소설 13편을 묶은 이상소설전집 출간으로 300권 고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8월 오버리우스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를 선보인 뒤 14년 간 25개국 작가 175명의 작품 240종이 번역됐고 그동안 판매 부수도

1000만부를 넘겼다. 지난 2001년 9월 출간된 '호밀밭의 파수꾼'은 지금까지 75쇄를 찍으며 40만부가 팔려나가 가장 많았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30만4000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27만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22만7000부), '수레바퀴 아래서'(15만9000부), 조지 오웰의 '1984'(14만6000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14만3000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13만3000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3만3000부), 프란츠 카프카의 '변



신, 시골의사'(12만3000부) 등의 순이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문화재단 ‘한민족 문화 어울림’

14~17일, 학술대회·문화투어 등 진행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민족 문화 어울림' 사업이 오는 14일~1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양 재단은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학술대회, 교육워크숍, 문화투어 등을 개최한다. 14일에는 '한민족문화공동체 교류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박호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리성일(중국 하얼빈교육국 민족교육처 처장), 김계르민(카자흐스탄, 알마티국립대학교 교수), 김영석(하얼빈 조선족제1중학교 교장), 장

원창(전통예술학교 교장)씨 등이 참여한다. 또 어린이 난타 등축하공연과 함께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초청인사들의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15일 열리는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에서는 불로초등학교와 신가중학교의 문화예술수업현장을 방문하며 제주남촌예술인촌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한 수업 체험과 전통문화강좌와 각국 재외동포사회의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열린다. 16~17일에는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와 소쇄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화·박순방교수 피아노 듀오 연주회

오늘 제주대서

서영화·박순방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날 프로그램은 슈베르트의 곡들로 꾸며졌다. 연주 레퍼토리는 '4개의 폴로네이즈 D.559', '환상곡 F단조 D.940' 등이다. 또 쇼스타코비치, 현은숙씨가 함께 출연, 4명이 2대의 피아노로 '숨어'를 들려준다. 조선대 음악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서씨는 한국피아노 듀오협회 광주 지부장, 선클러버 연구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박씨는 제주대 교수, 제주 피아노학회장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성훈 ‘그대는 내 모든 것’ 배워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내일 호신대 티브라운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나누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 11월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이달의 초청 작곡가는 한성훈(한국작곡가회 이사)씨다. 중앙대 출신으로 대학가곡제 등에서 수상한 한씨는 가곡 악보집 '우리들의 사랑', 합창집 '아름다운 가곡합창' 등을 펴냈다. 이번에 함께 배우는 노래는 1만 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거문도 뱃노래' 등을 부르며 회원 김우진·김혜민·양순영씨가 '천년의 그리움' 등을 노래한다. 그밖에 '옛동산에 올라', '고향생각', '고독' '해질녘 풍경' '산촌' 등 익숙한 곡들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한다. 회비 1만 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성훈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B (Korea Job Bridge)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It features a 30% OFF SALE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본점 (062) 227-9940, 목포점 (061) 262-9200, 서울점 (02) 765-9940, 총장점 (062) 227-9970, 장흥점 (080) 222-9975, 순천점 (061) 752-9940. The website www.kjhr.com is also mentioned.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It highlights a 30th anniversary celebration with a '30 years of service' theme. The ad promotes a 'Healthy and enjoyable meal' and offers a 'Business Hotel' experience. It lists the price for a 15-course set menu at 15,000 KRW and a 25-course set menu at 25,000 KRW. Contact information: (062) 525-2111. The website www.geumsoo.com is provided.